

# 『자평진전』, 『적천수』의 부·귀 해석체계 특징 고찰

김승중\*,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alth and nobility Interpretation System of 『Japyeongjinjeon』, 『Jeokcheonsu』

Seung-Jong Kim\*, Ki-Seung Kim\*\*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부·귀 해석체계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것이다. 명리학은 인간의 부귀(富貴)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 학문이다. 명리학의 2대 고전으로 『자평진전』과 『적천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 저서가 부귀해석에 대한 해석체계에서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면모도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평진전』에서는 먼저 그 사주의 성패(成敗)를 판단한다. 성격(成格)이면 길(吉)한 사주가 되고, 패격(敗格)이면 흉(凶)한 사주가 된다. 성격이 되더라도 그 중에 귀격(貴格)이 있고 대귀격(大貴格)도 있다. 대표 대귀격에는 재인병투(財印並透), 식신생재(食神生財), 식신합살(食神合煞), 살용식재(煞用食制), 상관용관(傷官用官)이 있다. 『적천수』에서 부(富)가 있는 사주로는 재기통문(財氣通門)이 있고 귀(貴)가 있는 사주로는 관성이회(官星理會)가 있다. 한국의 대표 재벌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자평진전』의 논법으로 성격이 되고 식신생재격이며 『적천수』 논법으로 재기통문의 첫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조건과 부합된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자평진전』의 논법으로 성격이 되고 살용식재격이며, 『적천수』 논법으로 선명한 일곱 번째 조건에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두 고전의 부귀에 대해 어떤 해석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고전 원문을 통해 알아보고, 아울러, 이론적 구성의 적합성을 현대 대표 인물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부·귀 해석체계 특징을 비교 고찰을 통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상관성, 행복, 부귀, 해석체계, 명리학, 선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ch and noble interpretation system of 『Japyeongjinjeon』 and 『Jeokcheonsu』. Myungrihak is a study that began with the study of human wealth and nobility. There are 『Japyeongjinjeon』 and 『Jeokcheonsu』 as two major classics of Myeongrihak. However, while these representative books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the interpretation system for the interpretation of wealth and nobility, they also have different aspects. Looking at this. In 『Japyeong Jinje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u-Ju is judged first. If it is Seong-Gyeong (成格), it becomes a good Su-ju (吉), and if it is a Pae-Gyeong (敗格), it becomes a bad Sa-Ju (凶). Even when it comes to Seong-Gyeong, among them there are Gui-Gyeong (貴格) and great Gui-Gyeong (大貴格). Representative great Gui-Gyeong include Jaen-Byeongtu (財印並透), Sigsin -Saengjae (食神生財), Sigsin-Hapsal (食神合煞), Sal-yongsigie (煞用食制) and Sanggwon-Yonggwon (傷官用官). In 『Jeokcheonsu』, there is Jaegi-tongmun (財氣通門) as a Su-Ju with wealth and Gwanseong-Ihoe as a Su-Ju with nobility (貴). Hyundai Group Chairman Chung Ju-yong, the representative chaebol of Korea, becomes a Seong-Gyeong in the argument of Japyeong Jinjeon』 and is a Sigsin -Saengjae, and Jaegi-tongmun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Jeokcheonsu』 are met The first, third, and seventh conditions. Samsung Group Chairman Lee Byung-cheol meets the seventh condition clearly in the argument of 『Jeopyeong Jinjeon』, which is Seong-Gyeong and Sal-yongsigie. In this study, we find out what kind of interpretation method there are and how they differ from the two classics through the original text. In addition, the suitability of the theoretical composition is examined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ch and noble interpretation system through empirical examples of modern representatives. It is hoped that it will be of some help to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Correlation, Happiness, Human wealth and nobility, Interpretive systems, Mveonglihag, Choice

Received 07 Jul 2021, Revised 16 Jul 2021

Accepted 21 Jul 2021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오늘  
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픈대로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고,  
좋으면 좋은대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  
을 살고자 한다. 변화의 속도가 격심한 현대사회 속에서  
희망과 아울러 불안도 상존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갖  
은 기상이변과 코로나로 대변되는 새로운 전염병의 창  
궤, 100세 시대의 실직 공포, 노후 빈곤 문제 등은 더욱  
개인의 불안 지수를 높이고 미래를 궁급하게 한다. 인간  
의 그러한 불안심리는 필연적으로 다양하게 미래를 예  
측하는 방법들을 찾아 왔다. 그 중 동양에서는 천여 년  
의 세월 속에서 명리학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다. 명리  
학은 행복의 조건으로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부(富)와  
귀(貴)에 대한 학문이다. 명리학의 발전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존재한다. 첫째는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의 틀과  
그 모양새를 보는 격국론이다. 두 번째는 일간의 역부를  
통해서 개인적 생존능력을 파악하고 개인의 성향과 사  
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물이나 가족관계 등 대처능력  
을 판단하여 운명의 길흉을 보는 역부론이다. 격국론의  
대표 이론서가 청대(清代)의 심효점이 쓴 『자평진전(子  
平眞詮)』이고, 역부론의 대표 이론서는 명대(明代)의  
유백운이 쓴 『적천수(滴天髓)』이다. 비슷한 시대를 통해  
발전하여 왔으나, 『자평진전(子平眞詮)』, 『적천수(滴  
天髓)』로 대별되는 유명 고전에서 부귀에 대해 해석하  
는 방법이 다른 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연구의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고전  
의 부귀에 대해 어떤 해석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고전 원문을 통해 알아보고, 아울러, 이론적 구성의 적합  
성을 한국 재벌의 대표적 인물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자평진전』의 부·귀 해석

『자평진전』에서 사주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는 격국의 성패(成敗)를 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  
기므로 가장 먼저 격국의 성패를 파악하게 된다. 곧 성  
격(成格)이면 길(吉)한 것이고 패격(敗格)이면 흉(凶)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평진전』에서 요구  
하는 성격이 되었다면 그중에서도 귀격(貴格)이면 부귀에

좋은 것이고 대귀격(大貴格)이라 한다면 가장 좋은 사주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자평진전』에서 언급된 부귀의  
최상급이라 할 수 있는 대귀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 2.1 재인병투(財印並透)

“정관격은 형충과해(刑沖破害)를 꺼려하고 그것을 생  
하고 보호하는 것을 기뻐한다. 기쁜 것은 보존하고 꺼리  
는 것은 제거해야 귀격이 되는데, 귀격 가운데에도 고저  
가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재성과 인성이 함께 투출한  
것을 그렇게 논하는 법이고 그 둘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그 귀격이 진정 큰 귀격이 된다.”<sup>1)</sup>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자평진전』에 소개된 설상공(薛相公)의 명조로 乙  
木 일간에 정관격으로 보았다. 壬水 인성과 戊土 재성  
사이를 乙木이 막고 있으니 水와 土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귀격이 되었다고 보았다. 원래 재성은  
인성을 극하기에 함께 하기 어렵다. 다만 이 명식처럼 인  
성 壬水가 일간 乙木을 생하고 乙木이 재성을 극하는 구  
조가 되어 水와 土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  
한 구조가 재인병투로서 대귀격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2.2 식신생재(食神生財)

“식신은 본래 일간을 살기하는 기운에 속하며 재성을  
생하는 능력이 있으니 식신을 기쁘게 여겨와 식신생재  
는 아름다운 격으로 여겨져 왔다. 이 경우 재성은 뿌리  
가 필요한 것이지, 정·편재가 여럿이 투출하는 것은 불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강하고 식신이 왕하며 재성이 투  
출했다면 대귀격이 될수 있다.”<sup>2)</sup> 고 하였다.

癸 癸 癸 丁  
丑 亥 卯 未

양승상(梁丞相)의 명식이다. 癸水 일간이 卯月에 태

1) 『子平眞詮』 「論正官」. 刑衝破害爲忌, 則以生之護之爲喜矣. 存其喜而去其忌則貴, 而貴之中又有高低者, 何也? 以財印並透者論之, 兩不相礙, 其貴也大

2) 『子平眞詮』 「論食神」. 食神本屬泄氣, 以其能生正財, 所以喜之. 故食神生財, 美格也. 財要有根, 不必偏正疊出, 如身強食旺而財透, 大貴之格. .

어나 식신격이다. 월지 卯木이고 亥卯未 木局을 이뤄 일간을 강하게 설기하나 세 개의 癸水가 일지 亥水와 지지 丑土에 통근하여 일간이 신강하고 식신도 왕하다. 연간 丁火 편재가 연지 未土에 뿌리를 내리고 목국의 생을 받은 강력한 식신생재격이다. 지금의 식신생재격은 사업형이라 하고, 관인상생격이나 재생관격은 직장형으로 진로를 분류하고 있으나 벼슬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던 시절인 왕조시대에선 식신생재격은 식신이라는 성실성과 활동성으로 재성이라는 결실을 맺는 성취의 힘은 그 시대가 원하는 시대상을 구현하는 힘으로써 대귀격이라 할 수 있겠다.

### 2.3 식신합살(食神合煞)

“식신격에 칠살은 합하고 재성이 남는다면 최고의 귀격이 된다.<sup>3)</sup> 식신격에서 칠살과 재성이 함께 있는 경우 칠살을 제거하고 재성만 남기면, 격용인 식신으로 칠살을 제복(制服)시켜 칠살의 권위를 일간이 가지게 된다. 게다가 식신이 다시 재성을 생조하여 부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니 부와 귀를 겸전하는 대귀격의 사주가 된다.

丙 癸 己 甲  
0 0 卯 0

癸水 일간이 卯月에 태어났다면 식신격인데, 상관 甲木이 투출하여 칠살 己土를 합(合)한다면, 칠살도 제복하고 식상혼잡도 해소가 되며 丙火 정재를 생하게 되어 부와 귀를 겸전하는 대귀격이 된다.

### 2.4 살용식제(煞用食制)

“칠살격이 한 가지로 단순하지가 않다. 칠살격이 식신의 극제를 용신하는 경우가 상급인데 칠살이 왕하고 식신도 강하고 일주도 건(建)하면 최상급의 귀격이 된다. 다음(아래 명식)은 극등지귀(極等之貴)의 격이 된다.<sup>4)</sup>

丁 乙 乙 乙  
丑 卯 酉 亥

乙木 일간이 酉月에 태어났다. 칠살 酉金이 酉丑으로 회합하여 칠살이 왕성하고, 일간은 亥卯合에 비견들이 도우니 일간 또한 건왕하다. 식신 丁火는 亥卯 목국에

비겁들의 생을 받아 강하다. 식신 丁火의 뿌리가 없는데 화운(火運)이 올 때 대발(大發)할 것이다.

### 2.5 상관용관(傷官用官)

“만약 겨울의 금 일주가 정관을 용신하는 경우, 상관이 化하여 재성이 된다면 특별히 매우 빼어나고 매우 귀한 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승상(鄭丞相)의 명이 亥未 회합하니 그러하다.<sup>5)</sup>

己 辛 己 丙  
亥 未 亥 申

『자평진전』에 나오는 정승상의 명이다. 辛金 일주가 亥月에 태어났다. 겨울의 金水傷官격에 亥水가 회합하여 목국을 이루고 생합을 하는 구조다. 천간에 丙火 정관이 己土 인성을 생하는 관인상생을 이루고 지지에서 亥未 목국이 상관생재를 화하는 화상위재(化傷爲財)를 이뤄 상관의 수기와 재성의 유익함을 다 취하는 최상의 구조를 이루었다.

## 3. 적천수의 부·귀 해석

부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다. 그래서 부와 귀를 탐구하는 명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명리학에서 부(富)는 재성(財星)을 기준으로 삼고, 귀(貴)는 관성(官星)으로 기준을 삼아 그 동태를 살펴 판단하게 된다. 『적천수』에서는 어떻게 부와 귀를 판단하는지 살펴보면 세 곳에서 부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첫째는 「간지총론」에 보면 “시작할 곳에서 시작하고 끝날 곳에서 끝나치면, 부귀복수(富貴福壽)는 영원 무궁하다”<sup>6)</sup> 둘째는 「통신론(通神論)」 ‘청기(淸氣)’에 보면 “하나의 청함이 이르고 도달한 곳에 청신(淸神)이 있어서 관장하고 취하면 평생 부귀가 진실되고, 탁한 것을 맑게하여 청함을 구하고 청함이 탁함을 제거하면 시간이 흘러 한곡(寒谷)에도 봄이 돌아온다”<sup>7)</sup>는 내용이다. 즉 간지의 흐름이 원활하고, 탁하지 않으며 청한 원국의 여부에 따라 부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추

3) 『子平眞詮』, 「論食神」. 更有食神合殺存財, 最爲貴格.

4) 『子平眞詮』 「論偏官」. 七殺之格局亦不一: 殺用食制者, 上也, 殺旺食強而身健, 極爲貴格. 如乙亥、乙酉、乙卯、丁丑, 極等之貴也.

5) 『子平眞詮』, 「論上官」. 若冬金用官, 而又化傷爲財, 則尤爲極秀極貴. 如丙申、己亥、辛未、己亥, 鄭丞相命是也.

6) 『滴天髓』, 「干支總論」, 始其所始, 終其所終, 富貴福壽, 永乎無窮

7) 『滴天髓』, 「通神論」 ‘淸氣’, 一淸到底有精神, 管取生平富貴眞. 澄濁求淸淸得去, 時來寒谷也回春.

상적 내용이라 사주를 통변함에 있어 명료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 셋째는 「하지장」에 있는 내용이며 구체적 설명이 있어 부귀를 논하는데 자주 인용된다. 그럼에도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있는 내용조차 구구각색이다. 「하지장」 내용을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풀어보았다.

### 3.1 부(富)가 있는 사주 - 재기통문(財氣通門)

『적천수』 「하지장」 원문에서는 ‘부(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을 알 것인가? 재성의 기운이 문호(門戶)를 통(通)하여야 한다.<sup>8)</sup>”고 하였다. 문호란 사람이 다니는 문을 일컫는데 명리학에서는 오행신(五行神)이 통관하는 기운을 말한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재산의 크기를 보려면 재성이 천간으로 투출하고 그 투출된 재성이 건왕하여야 하며, 일간 역시 뿌리가 튼튼한 상태로 건왕하면 재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성을 강한데 일간이 약하면 ‘부옥빈인’(富屋貧人)의 명조가 된다. 재성이 문호를 통해 부를 이룰 명조에 대해 유백운이 이렇게 설명한다.

“일주가 강하고 재성이 왕하며 관성이 재성을 보호하며 인성이 기신(忌神)인 경우 재성이 인성을 충분히 손괴(損壞)할 수 있거나 인성이 희신(喜神)일 때 재성이 충분히 관성을 생하는 경우, 상관이 중(重)한데 재성이 유통을 시켜주거나 재성이 중한데 상관이 많지 않은 경우, 재성이 없는데 암암리에 재성을 이루거나 재성이 투출하였는데 상관 역시 투출한 경우에 이 모두가 재성의 기운이 문호를 통한 것이라고 하며 이른바 부자의 명이 되는 것이다. 무릇 재는 처와 함께 논하는 법이고 서로가 통하는 것이 옳으므로 처는 현명한데 재산이 없는 자가 있고 또 재산은 부자인데 처를 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충회합(刑沖會合)을 봐야 한다. 단 재성이 청하고 일주가 왕한 자는 처가 아름답고, 재성이 탁하고 일주가 왕한 자는 살림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sup>9)</sup>”

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재기통문

으로 부(富)를 이룰 기본 조건은 일간이 뿌리가 있어 재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약하지 않아야 하며, 재성은 왕하고 길신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재성이 약할 때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을 땐 예외이다. 그리고 위에서 일곱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 일정 부분 해당해야 하고 전체적 구성이 제시된 조건들과 부합하여야 할 것이며, 재성을 생하는 변화함과有情함이 중요한 것이다.

첫째, 재성이 왕하고 비겁으로부터 재성이 과극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성이 재성을 보호할 때.

둘째, 기신인 인성을 재성이 과극할 때(길신의 역할).

셋째, 인성이 희신이고 재성이 충분히 관성을 생조할 때.

넷째, 식상이 중한데 재성이 유통시킬 때(재성의 역할).

다섯째, 재성이 중한데 식상이 적을 때.

여섯째, 사주에 재성이 없어도 암암리에 삼합의 성국(成局)을 이룰 때. 일곱 번째, 재성이 투출하고 식상 역시 투출할 때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은 『적천수천미』의 명조와 해석이다.

辛 壬 丙 甲	壬 辛 庚 己 戊 丁
亥 寅 子 申	午 巳 辰 卯 寅 丑

“壬水 일주가 子月, 한겨울에 태어나니 양인이 월령을 장악하고 年月의 木火는 지지에 뿌리가 없고 일지 식신 寅木은 연지 申金에 충하여 파괴되었으니 평범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기쁜 것은 일지의 寅木과 시지의 亥水가 목화의 장생의 곳이며 寅亥 목 육합(六合)이 되니 목화의 기운은 매우 부드럽게 관통되었다. 申子(辰) 회합으로 식신 寅木은 생합의 조력을 받았으니 이른바 재성의 기운이 월령에 관통함이 되어서 재산은 백여 만금이었다. 대개 큰 부자의 명조는 재성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재성을 생하는 식상의 변화함과有情함이 중요하다. 이를 재성의 기운이 문호를 관통한 것이라 한다. 만약 재성이 왕한 곳에 있더라도 관성을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서, 일주가 실령하였다면 반드시 비견, 겁제가 도와야 그것을 아름답다 한다.“<sup>10)</sup>

8) 『滴天髓輯要』, 진소암, . 何知其人富, 財氣通門戶,

9) 任鐵樵 增注·袁樹珊 撰輯, 『滴天髓闡微』, 財旺身強, 官星衛財, 忌印而財能壞印, 喜印而財能生官, 傷官重面財神流通, 財神重而傷官有限, 無財而暗成財局, 財露而傷亦露者, 此皆財氣通門戶, 所以富也. 夫論財與論妻之法, 可相通也, 然有妻賢而財薄者, 亦有財富有妻傷者, 看刑沖會合. 但財神清而身旺者妻美, 財神濁而身旺者家富.

10) 任鐵樵 增注·袁樹珊 撰輯, 『滴天髓闡微』, 「何知章」 壬水生于仲冬, 羊刃當權, 年月木火無根, 日支食神衝破, 似乎平常. 然喜日寅時亥, 乃木火生地; 寅亥合, 則木火之氣愈貫; 子申會, 則食神反得生扶, 所謂財氣通門戶也. 富有百餘萬, 凡巨富之命, 財星不多, 只要生化有情, 即是財氣通門戶, 若財臨旺地, 不宜見官, 日主失令, 必要比劫助之, 期爲美也.

위 내용은 임철초의 설명이나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寅木이 寅申沖을 당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월지 子水가 寅木을 생해주고 연지에 떨어져 있는 申金보다 가까이 인접한 시지 亥水와 寅亥合으로 木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또한 연월의 뿌리가 없다 하였으나 월지 子水의 생을 받은 일지 寅木에 甲木과 丙火가 통근되어 있고 甲木의 생을 받은 丙火는 더욱 강성해진 재성이 된다. 더욱이 대운에서 필요로 하는 목화운(木火運)으로 흐르니 거부(子)의 사주가 될 만하다 할 것이나 위의 유백온이 제시하는 재기통문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자.

일단 위의 명식은 부를 이룰 수 있는 재기통문의 조건 중 두 가지가 부합한다. 신강한 명식이며 세 번째 조건인 중한 식상을 재성이 유통시킬 때에 해당한다. 일지 寅木 식신이 연간 甲木으로 투간하였고, 寅木 支藏干 중 丙火도 함께 투간하여 천간에 식신생재를 이루었다. 일지 寅木은 시지 亥水와 寅亥합이 되어 식신 寅木이 중해졌고 더구나 월지 子水와 연지 申金이 申子水局이 되어 寅木과 甲木을 강하게 생조해준다. 말하자면 강한 생을 받는 식신이 중해졌고 그 힘을 재성이 받아 분출하게 된다. 다음은 일곱 번째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데 일지 寅木에서 투간하며 아름다운 식신생재를 만들었다.

### 3.2 귀(貴)가 있는 사주 - 관성이회(官星理會)

다음으로 '貴'의 문제를 살펴보자. 『적천수』 원문에 이르기를 "그 사람의 귀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관성(官星)이 이치에 맞도록 모이는 것에 있다"<sup>11)</sup>고 하였다. 귀함과 명예는 관성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귀관 오늘날 명예와 같다 하겠다. 그러므로 관성이 貴를 주관하게 된다. 이 귀의 제일 조건 또한 재성과 같이 일주가 신강해야 그 관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관성이 旺하며 일주가 旺하고 인수가 관성을 보호할 때, 겁재가 기신(忌神)이면 관성이 충분히 겁재를 제거하던지 인성이 희신(喜神)인데 관성이 충분히 인성을 생하거나 재성이 旺하고 관성과 통하여 이르던지 관성이 旺하고 재성이 유기(有氣)하던지, 천간으로 나타난 관성이 없는데 암암리에 관성의 局을 이루던지 관성이 암장되고 재성 역시 암장이 되어 있으면 이 모두가 관성이

11) 任鐵樵 增注: 袁樹珊 撰輯, 『滴天髓闡微』, 何知其人貴, 官星有理會

이치에 맞게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귀한 것이다. 관성과 더불어 자식을 이야기하는 법은 서로 통하는 것으로 자식은 많은데 관운이 없는 자, 관운은 왕성하게 나타나는데 자식이 없는 자, 역시 형·충·회·합(刑·沖·會·合)을 봐야 하는 것이다. 단 관성이 청하면서 일주가 왕한 자는 반드시 귀할 것이며, 관성이 탁하면서 일주가 왕한 자는 필히 자식이 많을 것이다. 상·기·격·국(象·氣·格·局)을 얻은 자는 처자와 부귀가 모두 이루게 될 것이다."<sup>12)</sup>

위의 내용이 유백온이 설명하는 관성이회(官星理會)이다. 이것을 자세히 풀면 재기통문과 비슷한 일곱 가지 조건이 만들어진다.

첫째, 관성이 왕하며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관성을 보호할 때

둘째, 겁재가 기신이면 관성이 충분히 겁재를 제거할 때  
셋째, 인성이 희신인 경우 관성이 충분히 인성을 생할 때  
넷째, 재성이 왕하고 관성에 통달할 때

다섯째, 관성이 왕하고 재성이 유기(有氣)할 때

여섯째, 천간으로 나타난 관성이 없는데 암암리에 관성의 局을 이룰 때

일곱 번째, 관성이 암장되고 재성 역시 암장되어 있을 때이다.

위의 조건의 그 내용이 재기통문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어떤 한 조건에 부합했느냐 보다는 전체적 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왕정시대에는 관록과 명예를 중히 여겼다. 관성을 재물보다 더욱 중히 여겼기에 사주를 간명할 때 관성을 중심으로 관인상생의 구조를 중히 여겼다.

辛 丁 癸 癸	丁 戊 己 庚 辛 壬
亥 卯 亥 卯	巳 午 未 申 酉 戌

"이 명조는 정관과 편관이 월령을 지녀 본래는 두려운 것이나 기쁜 것은 지지에서 亥卯 공합하는 인성의 합이 있어 아름답게 그림을 빌려 木을 지배하며 水의 세력을 木으로 흐르게 하여 통하고 있으니 관성이 이치에 맞게 모이고 있다. 꺼리는 것은 처음에 운로가 庚申, 辛酉

12) 任鐵樵 增注: 袁樹珊 撰輯, 『滴天髓闡微』, 官旺身旺, 印綬衛官, 忌劫而官能去劫, 喜印而官能生印, 財神旺而官星通達, 官星旺而財神有氣, 無官而暗成官局, 官星藏而財神亦藏者, 此皆官星有理會, 所以貴也。夫論民與論子之法, 可相通也, 然有子多而無官者, 身顯而無子者, 亦看刑沖會合。但官星清而身旺者必貴; 官星濁而身旺者必多子; 至于得象得氣, 得局, 得格者, 妻子富貴兩全。

로 칠살을 생하고 인수를 파괴하니 공명의 길은 멈춰거리게 된다. 己未대운에 지지에 亥卯未 삼합 인수국을 이루고 천간에 식신이 투출하여 운세의 흐름이 곧게 뻗어 출세하니 벼슬이 상서에 이르렀다. 그런즉 그 명국에 있어 반드시 그 운로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했다면 일개 쓸쓸하고 가난한 선비일 것이다.<sup>13)</sup>

이 명조는 정화 일간이 亥月에 태어났다. 꺼리는 것은 水기운이 관성이 되는데 정관 亥水가 癸水로 투간되어 연월 천간에 칠살이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지 4개가 모두 木局으로 묶여 두 癸水는 칠살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忌神으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 초년에 忌神을 돕는 金運으로 흘러 흥하다가 己未대운에 이르러 벼슬길에 올랐다.

관성이회의 조건에서 보면 인성이 희신인 경우 관성이 충분히 인성을 생하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 강한 관성 못지않게 인성도 亥卯 반합국을 이뤄 목국이 수로를 타고 흐른다. 관인상생격의 아름다운 구성을 보여준다. 특히 己未대운에 亥卯未 삼합의 완성으로 강한 관인상생의 힘으로 벼슬길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巳午未로 향하는 향방은 일간이 힘을 얻고 주도하는 시절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벼슬이 상서에 이르렀다. 이는 일간에게는 임철초가 주장하듯 명에는 운을 타고나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편고한 사주가 합을 하여서 중화가 되는 사주를 좋은 사주로 인정하며 관성이회의 구성을 보여준다.

#### 4. 2대 고전의 부귀 해석방법 비교

이번 장에서는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른 해석체계로 살펴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고전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 인간사를 알 수 없어 한국의 현대사 인물들 중 부귀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과 삼성그룹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13) 任鐵樵 增注·袁樹珊 撰輯, 『滴天髓闡微』 「何知章」. 此造官殺乘權, 原可畏也, 然喜支拱印局, 巧借栽培, 流通水勢, 官星有理會. 第嫌初運庚申辛酉, 生殺壞印, 假蹇功名; 己未支全印局, 干透食神, 雲程直上, 仕至尙書. 然有其命必得其運, 如不得其運, 一介寒儒矣.

#### 4.1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명조(1915~2001)

丁 庚 丁 乙 戌 巳庚辛壬癸甲乙丙  
丑 申 亥 卯 寅卯辰巳午未申酉戌

##### 『자평진전』 식 길흉해석

庚金 일주가 亥月에 태어났다. 월지 亥水와 연지 卯木이 연월지 亥卯 반합 木局이 되어 연간 乙木으로 이어지는 食神生財격이 되었다. 亥水 월지는 시지 丁火에서부터 이어져 丁火가 丑土를 생하고 丑土가 申金을 생하고 水의 저장고 申金이 亥水를 생하면서 식신과 정재가 강하게 작동된다. 『자평진전』에서 대표적인 대귀격인 식신생재격이 강한 분출력을 갖고 정관으로 나아가려 한다. 성격이 되었고 대표적인 식신생재격이 되었다. 본래 식신생재격은 신강해야하고 이 명식에선 庚金 일주가 월지를 잃었으나 보기보다 강하다. 庚金 일주가 干如支同으로 통근하고 濕土인 丑土의 생을 받아 뿌리가 튼튼하다. 다만 정재의 생을 받은 정관이 뿌리가 약해 불꽃이 이어지지 못했다. 충극이 없고 생조되는 강한 사주의 힘을 엿볼수 있는 구조이다. 정관의 힘을 쓰는 일 외에는 하는 일마다 성취되는 귀한 기운이라 할 수 있다.

##### 『적천수』 식 길흉해석

『적천수』에 나오는 재기통문 조건에 맞춰보면 첫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와 관련이 있다. 庚金 일간이 亥月에 태어났다. 첫째 조건이 재성이 旺하고 비겁으로부터 재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성이 재성을 보호할 조건이 된다. 월지 亥水와 연지 卯木이 반합 木局이 되어 연간 乙木으로 투간해서 재성이 왕하다고 할 수 있다. 일지 비겁이 시지 丑土의 생을 받아 강하나 그 힘이 亥水 식신을 생하는 구조가 되어 재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월간 丁火가 재성을 보호하고 있다. 셋째 조건인 인성이 희신일 때 재성이 충분히 관성을 생조하는 조건이 된다. 丑土 시지 인성이 시, 월간의 정화 정관이 일간을 극하는 것을 막고 생을 하는 희신이 되었고 강한 재성이 충분히 관성 丁火를 생조하고 있다. 일곱째 조건인 재성이 투출하고 식상 역시 투출할 때 조건에 부합된다. 재성이 왕하고 申金의 생을 받은 강한 월지 亥水 식신에서 지장간 속 재성이 천간으로 투간하면서 식신생재가 한몫이 된다. 재성의 유통의 힘이 좋고, 월지 亥水와 연주 간의 합으로 식상생재의 기운이 커서 대부호가

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 대부호의 기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생하는 구조의 순환이 정관 丁火가 월간에서 멈추고 뿌리가 없는 것이 부자의 상으로는 마땅하지 않다. 그 정관의 힘이 66 庚辰 대운에 비견이 강해지고 인성이 관을 생하는 시기에 대선 출마를 함으로써 현대가의 시련이 되었다.

<차이점 분석>

『자평진전』 식의 해석에서는 대귀격인 식신생재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적천수』의 해석에서는 재기통문의 일곱 가지 조건 중 세 가지에 해당되어 대부호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적천수의 해석에서는 재기통문의 일곱 가지 조건 중 세 번째와 일곱 번째에 해당되어 대부호(大富豪)가 될 수 있었다.

4.2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명조(1910~1987)

壬 戊 戊 庚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申 寅 戌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자평진전』 식 길흉해석

위의 명식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다. 戊土 일주가 寅月에 태어나 칠살격이다. 연간의 경금 식신이 칠살을 극제하니 상신이 된다. 칠살과 식신이 균형을 이루었고 일주가 건(建)하니 성격이 이룬 살용식제(煞用食制)격이다. 월지 인목과 연지 술토가 합을 하여 칠살이 왕성하고 일간 무토는 4柱에 모두 뿌리를 두고 있어 일간 또한 건왕하다. 식신 경금은 일지 신금에 통근을 하고 월간 무토와 연지 술토의 생을 받아 강하다. 이른바 자평진전의 대표적인 대귀격 중에 하나인 살용식제(煞用食制)가 된다.

『적천수』 식 길흉해석

『적천수』의 재기통문 조건 중 재성이 투출하고 식상 역시 투출하는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재기통문의 기본조건 중 하나가 일간이 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지와 월지를 잃었으나 무토 일간이 월간 비견과 병존하고 비견 戊土가 지지와 연지에 자리하고 있어 4 柱에 모두 양간 토가 자리하고 있어 무토의 성정인 신뢰(信)가 곳곳에 드러나 자기 확신과 원칙의 일관성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庚金을 제련하는 戊土가 생조한 일지 申金 식신

이 연간으로 투간하였다. 천간에 식신과 편재만 자리하여 식신생재의 기운만 가득하다. 시간 壬水는 申金 일지의 支藏干의 생을 받은 壬水라 식신생재가 절로 된다. 특히 30~40대 壬午대운과 癸未대운의 재성이 대발(大發)하면서 50대에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활동기에 적절히 들어온 재성대운이 완벽히 힘을 발휘한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비교하면 편관격이나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은 것이 고립된 월지 관성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 분석>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을 『자평진전』 식으로 통변하게 되면 『자평진전』의 대표적 대귀격 중 하나인 살용식제가 되고, 『적천수』로 바라보면 재기통문의 선명한 일곱 번째 조건에 해당되어 좋은 사주가 됨은 분명하다.

5. 결론

『자평진전』은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의 틀과 사주의 모양새를 보는 것으로 격국을 가장 중요시 한다. 격국이란 일간과 월령과의 십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주의 본원적인 체질을 말하는 것이며 한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 적응능력을 고려하는데 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사주의 성패를 판단한다. 성격이 되더라도 부귀가 있는 사주에 귀격이 있고 대귀격이 있다. 대귀격에는 재인병투, 식신생재, 식신합살, 살용식제, 상관용관이 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자평진전』의 판단법에 의하면 성격이 되고 식신생재격이며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살용식제격으로 대표적인 대귀격이다.

『적천수』에서는 일간의 억부를 통해서 인간의 개인적 생존능력을 파악하고 개인의 성향과 사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물이나 가족관계 등 육친에 대한 대응능력을 판단하는 운명의 길흉을 알 수 있다. 『적천수』의 부귀를 보는 판단법으로 부(富)가 있는 사주로는 재기통문이 있고, 귀(貴)가 있는 사주로는 관성이회(官星)가 있다. 정주영 회장은 재기통문의 첫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와 관련이 있고 이병철 회장은 선명한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한국 대표적 재벌의 사주를 두 고전의 해석체계를 살펴본 결과 각기 접근법은 차이가 있으나 해석의 결과

는 『자평진전』 식 해석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대귀격 구조였고, 『적천수』 식 해석으로 대부호를 나타내는 재기통문 해석이 가능했다. 원문의 인물들과 현대 재벌의 두 인물의 사례로 살펴본 결과 『자평진전』의 해석 체계로는 대귀격의 구조가 부귀와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었고, 『적천수』의 관점으로는 재기통문의 일곱 가지 조건에 종합적으로 부합하는 것이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었다. 두 고전의 차별점을 본다면 『자평진전』은 격국의 성패를 구분짓는 것도 유정하고 유력하고 신왕한 사주가 성하고 부귀한 명이 되고, 이는 『적천수』의 시종(始終)과 청탁(淸濁)의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사주를 살피는 근본적 기조는 하나의 맥을 유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통점을 본다면 일주가 건(建)하고 재성이 투출하고 식상 역시 투출할 때 특히 부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었다. 다른 해석체계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본다. 이러한 『자평진전』의 대귀격과 『적천수』 「하지장」의 부귀에 대한 구체적 구조 설명과 풀이가 명리학에서 밝히고자 하는 부귀에 대해 두 고전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석체계의 연구결과가 향후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References

[1] 강운용(2018), 『자평진전평해』, 부산: 도서출판 소강.  
 [2] 강현(2018), 『명리(운명을 조율하다-심화편)』, 서울: 돌베개.  
 [3] 김기승(2016), 『명리학 정론』, 서울: 도서출판 창해.  
 [4] 김기승(2013), 『격국용신 정해』, 서울: 다산글방.  
 [5] 김기승, 나혁진(2021), 『산음 자평진전』, 서울: 다산글방.  
 [6] 김남석(2018),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준호(2018), 「일간 중심의 용신과 『자평진전』의 격국용신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 박재범(2017), 「명리학의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론 비교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이시윤(2014), 「유백은 명리사상의 철학적 조명」,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임철초증주, 원수산선집, 김기승·김현덕편역(2017), 『滴水蘭蘭微』, 서울: 다산글방.  
 [11] 정태중(2014), 『정통 적천수 실제와 상용』, 서울: 법문북스.  
 [12] 沈孝瞻(정), 『子平眞詮』, 臺北: 武陵出判, 1999.  
 [13] 『滴水蘭』  
 [14] 任鐵樵(정), 『滴水蘭蘭微』, 臺北: 武陵出判, 1999.

### 김 승 중 (Seung-Jong, Kim)



· 1991년 2월 ~ 현재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학교, 교육행정기관 근무  
 · 2021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0년 8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국학석사)  
 · 관심분야 : 명상, 상담심리, 명리학  
 · E-Mail : ksj9941@naver.com

### 김 기 승 (Ki-Seung Kim)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2005년 3월~2011년 4월 : KICU대학원 교수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졸업 (직업학박사)  
 · 2011년 2월 : KICU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